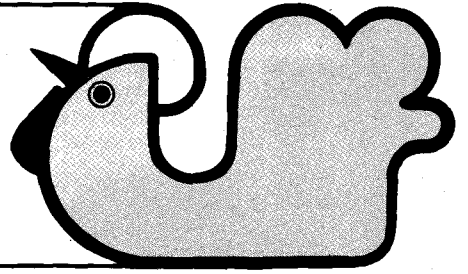


소식

대한양계협회



양계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처한 시책건의

— 본회와 한국가금학회 공동으로 —

10월 28일 한국가금학회와 공동주최한 수입개방에 대처한 한국양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요약하여 농림수산부에 한국가금학회와 공동으로 12월 2일 시책건의 하였다.

건의 주요내용

1. 계사시설 관리기계 및 가공처리시설과 기자재 구입에 일반농업차원의 융자와 지원요망
2. 간이 비닐계사에서 닭사육 허용과 간이 비닐계사의 표준설계 반영
3. 공중보건차원의 공공기관 공동방역제도 도입
4. 사료용 원료수입품목의 자율화
5. 사료용 곡물 수입자유화
6. 곡류 사료사용 상한선 철폐

7. 국산곡류는 부가가치가 높은 타용도로 사용하고 기타 원료는 이중가격제 적용
8. 사료용 원료도입시 관세의 부과철폐 또는 대폭 인하조정과 동일관세율 적용
9. 사료거래시 부가세징수 철폐
10. 양계생산물의 유통체계에 축협이 적극 개입하여 유통질서 확립
11. 민간업체의 양계산업계열화 참여시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부여
12.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일정수준 도달시까지 수입개방보류
13. 자조금제도를 마련하여 생산자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국산 옥수수 사료화에 대한 건의

- 12월 1일, 양축농가 보호키 위해 -

본회는 최근 국산 옥수수가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될 경우 불황으로 고통받는 양축농가들에게 추가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산 옥수수를 부가가치가 높은 타용도로 전환해 줄 것을 대한양계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연명으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했다.

건의서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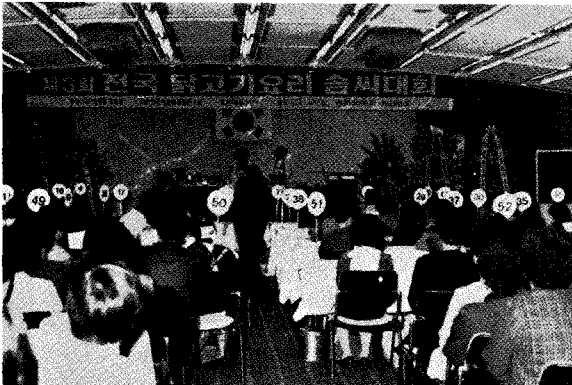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간 정부의 축산진흥시책에 힘입어 장족의 발전을 하여왔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대

부분의 축산물이 같은 시기에 생산이 과잉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더우기 최근 국제사료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양축가들이 심히 불안한 가운데 국산옥수수를 배합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약 135억원을 양축가들이 추가 부담하게 되어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과 축산불황으로 축산농가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를것 같으니 국산옥수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용 등 타용도로 전환하여 영세한 양축농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제3회 전국닭고기요리솨씨대회 성료

- 농림수산부장관상에 김덕남씨 -



△ 제 3 회 전국 닭고기 요리 솨씨대회 광경

본회는 지난 11월 4 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룸에 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와 공동으로주 최하고 농림수산부가 후원한 제 3 회 전국닭고기요리 솨씨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닭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대중적이 고 실용적인 새로운 요리법을 보급키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54명이 출전하여 열띤 경연을 벌인결과 최우 수상인 농림수산부장관상에는 서울관악구 봉천동 김 덕남씨의 닭살경단, 우수상에는 서울 이숙재씨의 닭 고기 깻잎짬과 제주 김영희씨의 닭고기 빈대떡이 차 지했으며, 장려상에는 이경희씨 등 10명이 수상했다.

특별상으로 조리과학상은 한명순씨(닭살 5 색튀김), 우수창작상은 인경옥씨(닭내장 꼬치밥짬) 가 각각 차 지했다.

올해로 3 회째 열린 이번 대회의 특징은 출품자가 직접 재료만 준비를 해와 즉석에서 요리를 함으로써 생동감이 있었다는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고 대부분의 출품작이 일반가정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 는 실용성 있는 대중적인 요리로서 영양면과 색조면 에서 우수했다는 심사위원의 평이었다.

특히 이번 닭고기요리솨씨대회 실황이 KBS - 1 T V, KBS - 2TV, MBC - TV 및 KBS - 1 라디오를 통해 새로운 닭고기요리와 닭고기의 우수성이 전국에 보도되어 닭고기 소비홍보에 큰 효과가 있었다(화보 참조)

'87 제 2 차 이사회 개최



△ 63빌딩 갤럭시룸에서의 이사회

본회는 지난 11월 4 일(수) 여의도 63빌딩 갤럭시룸 에서 87년도 제 2 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황인옥전무의 협회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심의에서 천안지구 육계분회와 의정부지구 육계분회를 설립승인하고, 초생추감발사자 격시험규정 일부개정, 협회상징 마크십의 및 양계산 물가격약정협의회 운영요령 동의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의가 있었다.

축산업발전 위한 축산정책 건의

- 축산 4 단체 공동 명의로 -

지난 11월 13일 축산 4 단체(양계, 양돈, 낙농육우, 종 축개량) 공동 명의로 전국 150만 양축농민의 생업유 지 및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원자재 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대폭감면과 축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자조금제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관 계당국에 건의했다.

홍보협찬금 1억3천6십여만원 모금

- 금년 목표의 87% 달성 -



△ 최죽송



△ 양재의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 협찬금이 11월30일(월) 현재 현금 104,345,200 원 현물 및 협찬자집행 26,

213,400 원으로 총 130,558,600 원이 접수되었다. 전양계인과 관련업체·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찬금은 계속 접수중에 있다. 올해 목표는 1억5천만 원으로 11월까지 87%를 돌파했다. 계속해서 관계자들의 뜻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십만원 이상 협찬자는(현물협찬 포함) 다음과 같다.

- 대한제당(주) (대표이사 설원봉) : 1,600,000 원
- 린나이코리아(주) : 1,800,000 원
- 서울사료(주) (대표이사 양재의) : 1,000,000 원
- (주) 요업개발 : 500,000 원
-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 2,000,000 원
- 한풍산업(사장 최숙중) : 1,000,000 원

제 5 차 검정위원회 개최



△ 제20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성적 검토회의

지난 11월24일 본회 회의실에서 87년도 제 5 차 검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86. 4. 22 부터 실시한 제20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이 87. 10. 19자로 78주령의 검정을 마침에 따라 검정성적분석검토 및 암호표 개봉을 하였다.

이번 검정의 78주령말 평균성적은 육성을 98.71%, 성계생존율 94.09%, 성성숙일령 161일, 산란율 77.59%, 산란지수 299.31개, 사료요구율 2.351%, 평균난중 62.09g, 체중 2.175g, 산란기 1일사료섭취

량이 113.25g으로서 품종별 세부성적은 검정위원회에서 정밀분석 되어 이번호에 발표하였다.

11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전국적으로 호흡기계통 질병 만연 -



△ 지역별 정보교환과 단합 및 전망회의

지난 11월27(금)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1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 를 개최하였다.

분과위원 및 지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육계가격은 550~600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병아리시세는 전국적으로 입추가 부진하여 하락추

세였고 병아리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비수기에 출하하기 때문에 당분간 입추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나 육계물량은 많지않은 편으로 12월초 이후 가격이 회복될 전망이다.

질병발생동향에서 전국적으로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만연되고 있어 앞으로 닭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며 각 농장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질병발생시는 숨기지 말고 즉시 협회로 연락을 해주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데 협조를 당부했다.

육계농장에서 백신접종현황을 조사한 결과 ND는 1회가 55%, 2회가 8%, ILT는 2.5%, IB는 36% 감보로 22.5%로 ILT는 육계에 있어서는 거의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포의 백명기 사장이 8년간의 자료수집으로 얻은 육계사료생산량, 소비지수, 브로일러시세간의 상승관계에 의한 가격전망도 있어 육계농가의 사육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험담이나 좋은 자료가 있으면 발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87년도 마지막 육계분과위원회는 87년도 육계산업을 회고하는 시간과 88년도 육계경기진단과 육계분과의 단합을 위한 망년회도 함께 가지고자 87년 12월22일(화) 축산회관에서 개최한다.

“위생란” 상표등록 안돼

특허청은 한국냉장(주)이 상표등록 출원한 “위생란” “위생계란”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의 37인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판정하였다.

감별사시험 및 경진대회 개최

- 정유범 감별사 우승차지 -

'87 제 2차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 및 경진대회가 지난 11월13일(금)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감별사시험에는 갑종 및 고등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전국에서 모두 87명(갑종 74명, 고등 13명)이 응시해 갑종 34명, 고등 2명이 합격했다.

이날 자격시험 후에 개최된 감별사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활동중인 감별사 16명이 응시하여 기량을 겨

룬결과 정유범감별사(봉명부회장)가 당당 우승을 차지했다. 정유범씨는 산란계 100수를 3분 48초만에 감별해내(정판율 100%) 전국 1위를 차지했다.



△ 감별사 경진대회 1위 시상식

경진대회 결과 및 갑종과 고등감별사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경진대회 결과(산란계 100수 감별)

최우수상-정유범(봉명부회장) : 정판율 100%, 3분48초

우수상-민정두(해외병아리감별학원, 봉명부회장) : 정판율 100%, 4분03초

장려상-정일채(천호부회장) : 정판율 100%, 4분08초

• 갑종감별사 합격자

배기운	박상호	김안식
전상보	최정관	정영환
서옥영	조혜경	장성일
오강춘	이병환	유효근
조성록	임미옥	백기석
유재호	황명선	이유득
이경옥	김홍섭	박두원
정대용	조향선	김상철
박희권	최준식	황영훈
남운성	김재관	성연홍
송재득	강순배	
최종엽	김옥동	

• 고등감별사 합격자

임진성
김은아

편집위원회 개최



△ 본지의 집필방향을 설정하는 편집위원회

'87 제11차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박사)가 11월12(목) 오후4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12월호 편집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 축산정책을 게재할 것과 양계인들의 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 원고요청을 낸바 있으나 뚜렷한 별도의 축산정책이 없어 원고재는 하지 않았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실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는 견해를 논의한뒤 창간 18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전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인천분회 사무실 이전

-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음 -

본회의 인천분회(분회장 오세웅)가 지난 11월 5일부로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이전주소: 인천시 남구 주안1동 277번지 4호
- 전화번호: (032) 864-6248(종전과 동일)

육계소비자교육 전문가 초청

- 루이스톤 12월 7일~12월19일 -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계란오므렛 전문가 하워드 헬머와 함께 육계 소비자교육 전문가 루이스톤박사를 오는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초청한다.

체한하는 2주일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육계 생산자

들과 간담회를 가질예정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2월 8일: 천안지역 육계 생산자와 간담회
- 12월 9일: 수원지역 간담회
- 12월10일: 중·남부지역(대구) 간담회
- 12월11일: 부산지역 간담회
- 12월14일: KFC 방문
- 12월17일: 가금처리협회 회원과 간담회
- 12월18일: 축산관련 매스컴과 인터뷰

학교조리실습 지원실시

- '87 연인원 8,963명 실습 -



△ 닭고기 조리실습을 경청하는 여고생들

본회는 소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의 주부, 조리사, 영양사, 여고생과 식품영양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닭고기·계란 조리실습 및 영양강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1학기(3월~7월)에 8개교의 5,770명을 실습 지원한데 이어 이번 2학기(9월~11월)에는 6개교 3,193명이 조리실습을 실시해 연인원 8,963명이 닭고기·계란 요리를 만들었으며 양계산물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번 조리실습 학교명은 다음과 같다.

- 명지여고
- 정신여고
- 광영여고
- 한양여자전문대학
- 승의여자전문대학
- 서울보건전문대학

기네스북에 오른 계란오므렛
전문가 초청 강습회 개최

- 하워드 헬머 12월 7일~12월12일 -



△ 미 계란 소비홍보전문가, 하워드 헬머

본회는 양계산물의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위해 요리 강습회, 요리책자·전단 발간, 요리솜씨대회, 학교조리실습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미국계란협회(A. E. B) 동부지역 홍보담당 대변인 하워드 헬머를 초청 발표회 및 실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헬머는 계란에 육류·채소 등을 넣어 계란오므렛을 만드는데 30분에 217개를 만들어 기네스북의 세계기록을 7년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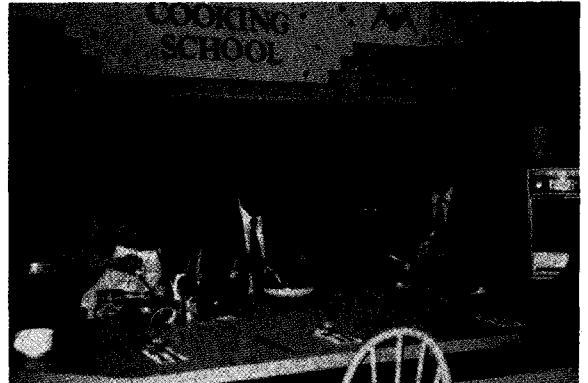
제한하는 1주일 동안 서울, 대구, 광주를 순회하며 오므렛 강습회와 참석자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실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계란우리의 간편함과 다양성을 소개하므로써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욱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습회 및 실연회 내용〉

- 12월 7일 오후 2시 : 주부클럽연합회
- 12월 8일 12시 : 프라자호텔 22층
- 12월 9일 12시 : 조리직업훈련원(신길동)
대한어머니회
- 12월 10일 오후 2시 : 대구 동아백화점
- 12월 11일 12시 : 광주 YMCA

계란 소비홍보팀 미국시찰

- USFGC 후원 본회 남부장 참가 -



△ 인디애나주 요리학교에서 오므렛 강습 및 실연회 (생산자 단체에서 후원운영)

본회는 효율적인 계란소비촉진홍보사업을 위해 미국 사료곡물협회 후원으로 미국에 계란소비홍보팀을 파견했다.

강희구조합장(서울경기양계조합)을 단장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미국 7개주를 돌아보고 귀국한 이번 시찰단은 미국의 지역별 계란관련 협회와 채란계 생산자단체를 방문해 생산자 단체활동, 소비촉진, 계란유통 등을 관심있게 돌아봤으며 농무성(USDA), 슈퍼마켓, 채란양계장, 사료공장, GP센타 등도 시찰했다.

시찰단은 강희구조합장을 단장으로 정창각감사(양계조합), 임용택이사(양계조합), 이진표사장(장기농장), 박중근계장(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본회 남두회부장으로 구성됐으며 안내는 계경성부장(미국 사료곡물협회)이 담당했다.

시찰단은 미국의 계란유통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최근 미양계농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미생산자들의 자구노력을 주의깊게 관찰했다. 미양계생산단체는 소비홍보촉진사업에 배전의 노력을 하고있으며 생산자들 기대 또한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산물 생산조절에 양계인이 적극참여합시다.